



박병호, 시범경기 4호 홈런 폭발

토론토 좌완선발 프란시스코 리리아노 상대 중월 투런포 볼티모어 김현수, 10게임 연속 출루 행진... 황재균은 침묵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가 시범경기 4호 홈런을 터뜨렸다. 박병호는 2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볼로라다 오토 익스체인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 메이저리그(MLB) 시범경기 토론토 블루제이스와의 경기에서 1루수 겸 7번타자로 출전해 5회초 결승 홈런을 쏘아올렸다. 박병호는 0-0으로 맞선 5회 무사 1루에서 토론토 좌완선발 프란시스코 리리아노를 상대로 중월 투런포를 날렸다. 지난 11일 마이애미 말린스전에서 홈런을 친 이후 열흘 만에 짜릿한 손맛을 봤다. 박병호는 현재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서 제외돼 초청 선수 신분으로

스프링캠프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박병호는 2타수 1안타 2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시범경기 타율은 0.394(39타수 13안타)로 끌어올렸고, 8타점, 8득점째를 기록했다. 미네소타는 박병호의 홈런포를 포함해 11안타를 몰아쳐 8-2로 승리했다. 김현수(30·볼티모어)는 시범경기에서 10게임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김현수는 플로리다주 포트마이어나스 팻블루파크에서 벌어진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시범경기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에 2타수 무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김현수는 3경기 만에 선발 출전했지만 안타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플래

튼 시스템 속에 고전하며 시범경기 타율은 0.238로 떨어졌다. 황재균(30·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은 시카고 화이트삭스전에 좌익수로 출전해 2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다. 이날 황재균은 3루수가 아닌 외야수로 뛰었다. 빅리그에 도전하기 위해 오랜 시간 외야 훈련을 소화하고 검증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황재균 쪽으로 오는 타구는 없었다. 황재균의 시범경기 타율은 0.313으로 낮아졌다. 한편 추신수(35·텍사스 레인저스)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민근기자

중국, 슈틸리케호 보호에 만전... 훈련장·숙소 공안 대거 배치

오는 22일 중국 창사에서 열리는 한국과 중국의 2018 러시아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6차전은 앞선 경기들과는 다른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축구와 정치를 한 묶음으로 보는 시선은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이번 경기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분리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자연스레 부각된 것이 안전 문제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단체 여행객의 국내 입국이 금지되는 등 중국 내 반한 감정이 절정에 달하면서 선수단은 물론

원정 응원단과 취재진까지 적잖은 긴장감을 안고 중국 땅을 밟아야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중국측은 최상급 경호로 선수단 보호에 나섰다. 대표팀 선수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에는 흑사나 모를 불상사에 대비해 공안들이 진을 치고 있다. 선수들이 묶는 33층과 34층에는 사복경찰까지 등장했다. 훈련장의 공기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지난 20일 중국 입성 후 첫 훈련을 실시한 슈틸리케호는 30명이 넘는 공안의 호위 속에 부담 없이 호흡을 맞췄다. 이들은 취재진의 동선까지 철저히

봉쇄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경찰들이 훈련장을 지키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대한축구협회는 중국 원정에 대해 적잖이 긴장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에 공문을 보내 선수단과 응원단의 신변안전에 각별히 신경써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였다. 지금까지는 평소 원정과 다른 평온한 분위기였다. 중국은 중국 대표팀 훈련 시간을 숨기는 등의 몽니를 부리고 있지만 경기 외적인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민근기자

프로농구 신인왕, 전자랜드 강상재로 굳어지나

모비스 이종현, 규정경기수 못 채워 SK 최준용, 팀 플레이오프 좌절

프로농구가 시즌 막바지로 치닫 가운데 신인왕 타이틀 경쟁이 치열하다. 2016~2017 KCC 프로농구는 오는 28일 정규리그를 마감한다. 생애 단 한 번 뿐인 신인왕 자리를 두고 울산 모비스 이종현(23·203cm)과 서울 SK의 최준용(23·200cm), 인천 전자랜드 강상재(23·200cm)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전체 1순위로 모비스 유니폼을 입은 이종현은 개막 후 피로골절로 코트를 떠나 약 3개월의 공백 기간이 있었다. 지난 1월에서야 프로 데뷔전을 치른 이종현은 팀이 정규리그 단 1경기를 남겨놓은 현재 21경기에서 평균 10.5점 8.2리바운드 2.2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다. 문제는 이종현이 규정경기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점이다. 신인상을 받으려면 정규리그 54경기의 절반인 27경기를 뛰어야 하지

만 이종현은 현재 21경기에 출전에 그쳐 사실상 신인왕 수상이 불가능하다. 시즌 초반 압도적인 활약으로 서울 SK의 상승세를 이끌었던 2순위 최준용은 지난해 12월 경기 도중 입을 무릎부상으로 인해 뒤처졌다. 여기에 팀의 플레이오프 진출 실패도 한 몫하고 있다. 최준용은 올 시즌 42경기에서 평균 8.3점 7.3리바운드 2.5어시스트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3순위로 전자랜드의 지명을 받은 강상재는 올 시즌 49경기에서 평균 8.3점 4.7리바운드 1어시스트의 활약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이들의 소속팀들도 신인왕 만들기에 가세했다. SK는 메일을 통해 '최준용이 시즌 중반과 6라운드 초반에 부상'으로 인해 현재 기록이 조금 떨어진 상태지만 이번 시즌 데뷔한 어느 신인보다

농구에 대한 열정과 투지, 그리고 프로 선수다운 하이라이트 장면을 수차례 연출하며 농구 팬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록적인 면에서도 최준용이 득점과 리바운드, 어시스트, 블록 등 주요 부분에서 신인상 후보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자랜드 역시 '강상재 신인왕 만들기 위원회'를 꾸리고 사무국은 물론 유도훈 감독까지 강상재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문제는 소속팀의 성적이다. SK가 이미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반면에 모비스와 전자랜드는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한 상황이다. 이종현이 정규리그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팀 성적에 따른 공헌도를 생각한다면 강상재에게 무게가 쏠리는 것이 사실이다. 기자단 투표로 결정되는 신인왕 수상자는 오는 27일 그랜드 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프로농구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김민근기자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포상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국 4위를 차지한 전북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21일 본청 8층 대회의실에서 입상학생 및 지도자, 육성학교장, 감독교사,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입상 선수 및 지도자 포상 격려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올해 2월에 열린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 전북 학생선수들이 금메달 15개, 은메달 12개, 동메달 12개 등 총 39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전라북도가 19연속 종합 4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 입상선수와 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회 괄목할 성과는 바이애슬론의 무주중 최윤아 선수 3관왕, 안성초 박희연 박소윤 최수린 선수, 무주초 정영은 선수 2관왕, 스키 알파인 구원초 유시완 최태희 선수 2관왕과 인후초 피겨싱크로나이즈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많은 선수들의 탐과 열정으로 전북 학교체육의 위상을 빛나게 했다. 이에 따라 학생선수는 금메달 30만원, 은메달 20만원, 동메달 10만원, 지도자는 금 100만원, 은 50만원, 동 30만원씩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자신들의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부하며 운동하는 전북 체육영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지난 2월9일부터 12일까지 강원·서울·경기·경북에서 개최됐으며 전북 초·중·고등학생 선수단 133명, 임원 50명이 빙상과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종목에 참가했다. /정해은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